

심은경 日 최우수 여우주연상 “실감 안나”



제43회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 한국 여배우 최초 수상
사학 스캔들 다룬 ‘신문기자’서 사회부 기자 일본어 연기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마음을 다스리는 중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제게 주어진 작품들을 열심히 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지난 6일 열린 제43회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여배우 최초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은 심은경(26·사진)이 국내 언론에 밝힌 수상 소감이다. 그는 “국적을 떠나, 모든 작품이 많은 스태프와 제작진의 노고와 도전으로 만들어지지만, 이번 ‘신문기자’라는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많은 분의 노고와 응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작품 하나하나에 정성과 진심을 담아 작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은경은 시상식 때 수상자로 호명되자 큰 눈을 연신 깜빡이며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무대 위에선 눈물을 알

각 쏟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해 소감을 준비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모습은 국내 영화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됐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풍풍 얼어붙은 한국영화계에 또 다른 낭보를 전해준 심은경은 올해 스물여섯살이지만, 18년 차 베테랑 배우다.

2003년 드라마 ‘대장금’으로 데뷔한 뒤 다양한 작품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2011년 영화 ‘씨니’ (736만명)와 2014년 ‘수상한 그녀’ (865만명)로 최연소 흥행퀀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널 기다리며’ (2016), ‘견기왕’ (2016), ‘특별시민’ (2016), ‘조작된 도시’ (2017), ‘열혈’ (2017), ‘궁합’ (2018)을 통해 연기 외연을 넓혔다. 2016년 특별 출연한 ‘부산행’에서 좀비 때 습격을 처음 알리는 장면은 짧지만 역대급 좀비 연기로 꼽힌다.

‘신문기자’는 사학 스캔들을 취재한 도쿄신문 사회부 기자 모치즈키 이소코가 쓴 동명 저서를 토대로 한 작품이다. 아베 총리가 연루된 사학 스캔들 중 하나인 ‘가계 학원’ 스캔들과 내용이 유사해 일본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현 정권을 비판하는 민감한 내용이 담긴 만큼, 일본 방송에선 소개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과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탔고, 지난해 6월 143개 상영관에서 개봉해, 한 달도 안 돼 33만명을 동원하며 흥행 수익 4억엔 (44억8000만원)을 돌파했다.

심은경은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자란 사회부 기자 요시오카 역을 맡았다. 일본어를 1년간 배운 뒤 일본어로 연기했다.

미쓰노부 PD는 “일본 여배우들이 출연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다른 일본 여배우에게는 출연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서 “심은경의 자적인 면과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모습이 제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지숙 영화평론가는 “심은경의 이번 수상은 여러 함의가 있다”면서 “다만 쟁쟁한 일본 여배우들을 제칠 정도로 연기 자체가 좋았을뿐만 아니라, 일본의 진보적인 영화인들이 이 작품을 응원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기자’는 일본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남우주연상까지 3관왕을 차지했다.

일본 아카데미상은 일본 내 영화 관계자로 구성된 약 4000명의 회원 투표로 결정된다.



‘굿캐스팅’의 배우 최강희, 유인영, 김지영, 이종혁, 이준영, 이상엽 (위쪽부터 시계방향). 연합뉴스

최강희 안방 복귀… ‘굿캐스팅’ 내달 방송

국정원 여성 현장 요원 이야기

배우 최강희와 이상엽 주연의 SBS TV 새 월화드라마 ‘굿캐스팅’이 다음 달 27일부터 방송된다.

‘굿캐스팅’은 국정원 현장에서 밀려난 여성들이 현장 요원으로 차출된 후 위장 잠입 작전을 펼치는 액션 휴머니즘 블록버스터다.

최강희는 교도소 내 위장 잠입도 마다하지 않는 국정원 요원 백찬미

로 분한다.

이상엽은 과거 첫사랑에게 차인 트라우마를 지닌 미남 회사 대표 윤석호 역을 맡았다.

유인영과 김지영은 최강희와 함께 한국관 ‘미녀상종사’로 변신한다. 드라마는 이들이 의기투합해 걸크러시 액션을 선보이는 모습을 담는다.

새 드라마는 이준영, 이종혁 등도 출연하며 박지하 작가가 대본을 쓰고 최영훈 PD가 연출한다.

‘기생충’ 일본 매출 40억엔 영국서도 최고 흥행 달성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일본에서 누적 매출 40억엔을 돌파했다.

9일 CJ ENM에 따르면 ‘기생충’은 일본에서 8일 기준 40억4716만엔 (47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종전 1위인 2005년 ‘내 머릿속의 지우개’ (30억엔)를 뛰어넘은 최다 기록이다.

지난해 12월 27일 3개 관에서 먼저 선보인 ‘기생충’은 올해 1월 10일 일본 전역에 확대 개봉했다. 개봉 초기에는 5위로 출발했으나,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뒤에는 정상에 올랐다.

‘기생충’은 영국에서도 역대 외국어 영화 최고 흥행 성적을 올렸다.

지난달 7일 (현지시간) 영국에서 개봉한 ‘기생충’은 이달 6일까지 1108만8149파운드 (약 174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있지(ITZY)가 돌아왔다. 걸그룹 있지(ITZY)가 9일 미니 2집 ‘있지 미’ (IT ‘Z’ ME)로 컴백했다. 있지는 지난해 2월 데뷔해 신인상 10관왕에 오르며 ‘괴물 신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8개월 만에 컴백하는 있지는 시간이 흐른 만큼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불구속 기소 ‘승리’ 육군 현역 입대

코로나19 발열 검사 후 입소

취해진 향해 허리 숙여 인사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9일 현역 입대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도착한 승리는 위병소 안에 마련된 천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발열 검사를 하고 곧장 입영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짧게 자른 머리에 검정 마스크를 쓴 승리는 입영 전 취재진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지만, 심경을 묻는 말에는 입을 꼭 다물었다.

평소 유명 연예인의 입대 풍경과 다르게 승리의 입소를 배웅하는 팬

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달 4일 10억원 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겐 입영을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차례 구속 gal립길에 썼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승리에 대한 재판은 관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일반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얼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고릴라(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랑 8:30 TV매거진 해파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MBC 뉴스특보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설맞 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땀방울 유치원 9:30 원더폴츠 10:00 특집 부모특강 0.1%의 비밀 12:00 EBS 정오뉴스 14:55 웅장한 소방차 레이 15:10 로보가 폴리 15:55 얼마 깨우기 16:10 최고다! 호기심 따지 4 16:40 땀방울 친구들 17:30 애교와 친구들 19:00 스페이더맨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시사 직격(재)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5: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시간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00 생생정보 스페셜 12:45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5:10 자몽공부책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얼 샐러드(재) 17:00 날아라 숲들이 뉴비기닝(재)	12:00 12 MBC 뉴스 12:20 배사 매거진S 12: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13:20 헬로킴즈 동물교실 2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나쁜 사랑(재) 16:00 두 번은 없다(재) 17:00 5 MBC 뉴스 17:25 시정길	12:00 SBS 12뉴스 12:20 JIBS 뉴스 12:40 아무도 모른다(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네오세모(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9:30 김형정의 뉴스쇼 9:05 고대왕가에 이한열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0 시사자키 정판공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이웃집 찰스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역사저널 그날 22:5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3:00 더 라이브 23: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우아한 모녀 20:30 글로비24 20:55 날아라 숲들이 뉴비기닝 22:00 고릴라(재) 23:00 영화가 좋다(재)	18:25 테미가행 길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항쟁 세 어머니 이야기 21:50 까리까리 스페셜 23:10 PD수첩	18:00 불타는 청춘(재) 19:00 열린예술무대 뒤란 19:5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1:40 아무도 모른다 22:20 아무도 모른다 23:00 불타는 청춘 1부 23:40 불타는 청춘 2부	7:00 KCTV 뉴스 8:30 특목TV뉴스 9:30 헬렌지 퀴즈챌린지 10:30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꿈을 그리다’ 12:10 KCTV 내한수 13:10 UHD 특선 15:10 헬렌지 퀴즈챌린지 17:40 KCTV 시청자제상 18:00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꿈을 그리다’ 19:00 KCTV 뉴스7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0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원 교수(010-5233-6136)
 36년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이 보약. 48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내일이 전념하라. 60년 추진하는 일이 풀리고 의욕 고취. 직장인은 대인관계에 중점. 72년 승진, 취업 또는 상을 받을 일이 따른다. 창업, 개업은 심사숙고. 84년 동료와 융화를 하거나 협조할 일이 생긴다.	 42년 문서 매대 이동에 길. 여행(출장)할 일이 생긴다. 54년 뜻대로 일의 성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 66년 대립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먼저 양보와 배려. 78년 자금거래를 삼가라. 보증문제 발생. 이성 관계에 불협화음. 90년 모임이 있거나 활동이 왕성한 날. 돈 지출이 생긴다.	
 37년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추진해가면 일이 풀린다. 49년 사비 구설이 오니 언쟁을 피하고 질투하지 마라. 61년 재주가 많은 사람은 오늘도 끊임없이 분주하다. 73년 뜻밖에 희소식이 기다린다. 약속 시간 엄수하여 제시간에 도착이 중요. 85년 감정대립 또는 오해 소지가 많으니 언쟁을 조심하는 게 좋다.	 43년 동료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55년 바쁘게 활동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적어서 속상하다. 67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거나 정리하는 하루. 내부 일에 지중하라. 79년 친구와 불화가 오니 언쟁을 조심하라. 91년 다투면 오히려나, 즉시 화해하거나 오해 없도록 자리를 피하라.	
 38년 가족 모임이 구성되거나 친구모임이 있다. 차는 두고 가라. 50년 동창 모임이 있다. 귀가는 늦지 않도록. 귀가가 늦으면 불화가 된다. 62년 자녀에 대한 애정이 많아지고 배려한다. 74년 외출 또는 여행할 일이 있다. 차량운전은 조심. 86년 내 생각을 적극 추진하라. 운은 내가 취하는 것이니 활동하라.	 44년 물건을 분실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56년 적절한 규모있는 자금 지출을 하라. 과소비에 스트레스 우려. 68년 도전의식과 의욕이 강한 만큼 치밀한 계획과 성실한 실행력이 필요. 80년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 92년 노력 끝에 결실이 맺으니 일이 진전이 있고 희망도 있다.	
 39년 하던 일이 안 풀리면 잠시 휴식 필요. 모임도 원만. 51년 자식에 의한 애정사가 있다. 상의가 필요. 63년 이사 또는 변화가 있다. 문서상 이득이 있고 재물이 생긴다. 75년 바쁜 소식을 접하거나 초대 받을 일이 생긴다. 87년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는 이외의 만남은 늘 포근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45년 아이를 위한 기도나 상담도 때론 필요하다. 57년 내 마음과 육신이 허전함을 고독으로 느낀다. 여행을 떠나라. 69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는 때. 미혼자 결혼 추진 적극 임하라. 81년 전문성에 도전하라. 직장인은 기쁨이 있다. 93년 전점을 생활화 하라. 맞이한 다음에 후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40년 집안 일로 외출 또는 여행을 한다. 물건 구입시 과소비 주의. 52년 자기자업을 한다면 마무리를 잘 해야한다. 64년 인생이나 다툼이 생길 소지가 많으니 필요 이상의 언쟁을 하지마라. 76년 전문적 종사 또는 여행을 창조하는 분야는 좋은 소식 있다. 88년 부탁이 들어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준다.	 46년 몸에 이상이 오거나 구설수 조심해야 한다. 58년 휴식을 취하고자 하여도 내일이 산적해 있다. 집안일에 지중하라. 70년 여행 또는 외출을 하거나 손님이 방문하여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미팅이 추진되거나 친구를 축하하러 가게 된다. 폐선에 초점을 맞춰라. 94년 재물의 지출이 생기나 곧 회복된다.	
 41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 유리. 53년 모임이 생긴다. 귀가는 늦지 말 것. 음주는 자제. 65년 상대자와 언쟁이나 다툼은 피할 것. 네 자랑만큼 자금지출과 일치. 77년 부모님과 상의할 일이 생기고 기쁨도 있다. 이성 소식이 오면 만나라. 89년 유혹 낭비하는데 지출이 생긴다.	 47년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 59년 직장이나 부하직원에게 의한 고민, 자식의 문제로 걱정을 한다. 71년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질투할 일이 생긴다. 친구간에 경쟁은 금물. 83년 하는 일에 자신을 갖고 더 노력하여 전문가로 발돋움할 것. 95년 결실을 거둬들인다. 내집에 할 일이 많아진다.	